

※ 특별연재 ④ ※

마음과 힘 (4)

Psychodynamics in dentistry

九宜齒科醫院

金 潤 煥

3. 陰陽說

演繹的 推理를 하려면 一般 原理나 假說이 필요 한데 演繹的으로 推理하여 發展하여 온 中國哲學의 基本的 假說은 陰陽說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 해서 近代 西歐科學은 주로 歸納法을 써왔다. 그런데 이 두 學問의 結果는 現代에 와서 딱 맞아 떨어 지지 않고 不合理한 結果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여 지까지의 東西洋의 思想을 比較分析하여 서로 모순 된 점을 찾고 相互補完的으로 發展시킬 수 있는 계 기를 삼고져 한다. 이런 觀點에서 陰陽說과 相對論 을 二回에 걸쳐서 比較해 보려고 한다.

이 두 理論은 그 概念이나 表現이 다르지만 說明 하고져 하는 自然現象은 같은 것이다. 바꾸워 말하 면 같은 自然現象을 說明하면서도 그 表現이나 概 念이 다르다.

(1) 歷史的 考察

中國哲學의 經典인 周易은 陰陽說의 原典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周易을 쓴 著者나 年代가 不確實하 나 대체로 8 卦와 64 卦는 傳說上의 古代 帝王인 伏 儀氏에 의하여 이루어지고(B. C 3,000), 卦父辭는 周나라 開祖인 文王과 그의 아들이며 周의 臣下였 던 周公에 의하여 만들어 지고, 十翼은 孔子에 의 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들의 時代는 많이 차 이가 지기 때문에 易의 성립은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周易은 儒敎와 道敎의 中心思想 이 되었으며 그 思想은 계속 發展되어 왔다. 儒敎 에서 周易은 否定될 수 없는 權威를 갖인 經典으로 여겨졌다.

道敎의 始祖인 老子는 后周代에 孔子와 같은 時 代사람으로 孔子보다 年長이었다고 한다. 老子는 周易을 기초로 하여 發展시킨 道敎思想을 말하였다. 老子는 無爲自然을 강조하였는데 그 뜻은 人爲의인

조작을 하지 않고도 필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 이고 宇宙·天地·大自然을 움직이는 힘이나 法則 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이 만든 法則이 아라나는 것 이다. 그것은 바로 無爲自然이고 道며 道속에 있는 道理라고 보는 것이다.⁹⁾

春秋戰國時代에는 여러 思想家가 나타나서 儒敎 와 道敎는 發展하였다. 두 哲學思想은 對立하고 있 으면서도 그 中心思想은 다 같이 易經이었다.

東洋에 醫學도 易經思想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歷 代로 中國의 哲學思想의 發展은 東洋醫學의 發展을 촉진시켰다. 古代 傳說上의 帝王인 伏羲氏가 周易 의 卦를 만들었고 神農氏는 本草論을 만들었다. 中國에 많은 思想家를 배출하던 春秋戰國時代에 名醫 인 扁鵲이 나왔다. 「黃帝內經」이 戰國時代에 씌어 져서 奏·漢의 學者에 의하여 增補되어 前漢時代에 완성되었다고 傳하여 온다.

ADI世紀頃에는 印度에서 佛敎思想이 들어와서 中國의 傳統文化와 마주쳤으나 이들은 계속 相互補完 的으로 發展해 왔다.

中國에서는 단순한 醫術의 전문가보다도 儒學의 높은 교양을 가진 醫師가 존경을 받았다는 사실로 도 哲學과 醫師사이에는 相互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后漢時代 AD200년경 傷寒論 이 張仲經에 의하여 편찬되었는데 그는 醫師출신이 아니었다.

春秋戰國時代에 哲學思想이 發展하고 이에 영향 을 받아서 醫學이 發展하였던 것은 漢代에 이르러 서이며, 漢醫學이란 명칭도 여기서 생겨났다고 한 다. 唐代에 이르러서는 佛敎의 思想이 극히 왕성하 였으며 中國의 傳統文化는 大象化되면서 周易은 占 筮로 變化되는 경향을 보였고 뛰어난 思想家를 배 출하지 못했다.

宋代에 이르러서 抑佛崇儒 정책을 쓰면서 新儒學 派가 나타났다. 太極圖說을 주창한 周濂溪, 氣一元

고 있는 것이다.

自然現象을 주도하는 힘을 神의 能力, 氣, energy, 힘등과 같은 다른 表現으로 說明하였지만 自然現象 그 自体는 같은 하나이다. 그러나 西歐에서는 神의 能力을 自然科學의 研究對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結果는 오늘날 西歐科學이 唯物論의인 思维로 흐르게 했다.

東洋에서는 古代에 陰陽說이란 假說속에 氣의 概念이 도입되어 있다. 周易에 「易에는 太極이 있으니 이것이 兩儀[陰陽]을 낳고 兩儀가 四象을 낳고 四象이 八卦를 낳는다」고 하여 自然을 움직이는 두 가지 原動力을 陰과 陽으로 說明하고 있다. 陽은 天, 乾, 밝음, 男, 父, 君, 夫, 上, 剛強, 健, 首, 적극 활발, 굳셈을 뜻하고, 陰은 地, 坤, 어둠, 女, 子, 臣, 婦, 下, 柔弱, 나약, 腹, 소극, 온순, 부드러움을 뜻한다. 이것은 事物의 現象學的 說明이라기 보다 그 속에 함축된 energy 原을 說明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陰陽은 固定不變한 것이 아니고 流轉化變하는 것으로 陰이 陽으로 陽이 陰으로 바뀔 수 있다. 예를들어 女子는 남편에 대해서 陰이지만 아들에 대한 어머니는 陽이 된다.

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氣를 形而上으로 생각하였으나 文獻上에는 氣를 形而下로 보고 理를 形而上으로 보고 있다. 理氣說에 대하여 여러 儒學者들의 見解가 다르다. 이를 李東俊教授의 評說「栗谷思想의 哲學的 考察⁵⁾」에서 인용하여 본다.

「理氣說은 宋代 程朱에 와서 哲學의 핵심 問題로 대두된 것인데, 이것을 根原의으로 살피면 周易에서 부터 나온 것이다. 周易에 「形而上者를 道라고 하고 形而下者를 器라고 이른다」고 하여 形而上의 原理와 形而下의 現象을 나누어 생각한다. 宋代에 周濂溪는 太極圖說에서 「太極이 動하여 陽을 生하고 靜하여 陰을 生한다」 「太虛가 動하여 陽을 生하고 靜하여 陰을 生한다」고 하여 구극적인 것을 太虛之氣로 보는 것이다. 太極圖說에 朱子가 주석을 내었는데 여기서 無極而太極은 形而上의 本체인 理로서 陰陽, 五行은 形而下의 現象인 氣로 理解 하였으며 이러한 理氣의 관계가 性理學의 중심 과제가 되었던 것이다. 모든 것은 理와 氣로 되어 있다고 본다. 朱子는 「理는 形而上者이니 물을 生하는 근본이요, 氣는 形而下者이니 물을 生하는 具體이다」라고 하였다. 程伊川과 朱子는 理가 氣보다 根本의인 것으로 理解하고 있다. 張模渠는 氣를 根本으로 하거나 氣의 입장에서 말한다.

朱子는 「太極圖說에서 無極而太極을 풀어서 上天之載가 無聲 無臭하니 조화의 추유(樞紐)요 품위(品彙)의 근거가 된다. 太極에 動과 靜이 있는 것은 天命의 流行이다」라고 하였다. 周易에 이르기를 「形而上者를 道라고 하고 또 一陰一陽케 하는 것을 道라」하였으니…… 一陰一陽으로 보이는 것은 形器이지마는, 一陰一陽 하는 까닭은 道體의 소위이다」고 하였다.

花潭에 있어서 오직 있는 것은 「氣」뿐인 것이다. 氣만이 실재하는 것이요, 理란 氣가 內包하는 「氣」 自体의 自律性에 불과한 것이다. 張模渠의 正蒙에 「太虛는 無形하니 氣의 本体이며, 그 聚하고 散하는 것은 變化의 容形일 따름이다. 「氣」가 太虛에서 聚散하는 것은 얼음이 물에서 영기고 풀리는 것과 같다. 太虛가 氣라는 것을 알면 없는 것이란 없는 것이다」花潭에 있어서 形而上 形而下는 모두 氣이고 理는 獨立된 實在가 아니다. 栗谷에 있어서 元氣는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이며 不增不減하는 것이다. 天地가 비록 크지만 元氣중의 一物이다. 天地는 없어져도 元氣는 항상 不增不減하여 生滅이 없는 것이다. 「理가 혼성하고 二氣가 유행하니 天地의 음과 사물의 바뀜이 理氣의 妙用이 아닌 것이 없다. 무릇 形而上者는 自然한 이치요, 形而下者는 自然한 氣運이니 이리가 있으면 이 氣가 없을 수 없고, 이 氣가 있으면 만물을 生할 수 밖에 없다. 이 氣가 움직이면 陽이 되고 氣가 고요하면 陰이 된다.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한 것은 氣요, 움직이게 하고 고요하게 하는 것은 理이다. 陰陽이 이미 나누임에 二儀가 비로소 열리며 萬化가 생하나니 그러한 現象은 氣요, 그렇게 되는 까닭은 理이다. 나는 누가 이것을 주장하는지 알 수 없으니 저절로 그렇게 될 따름이다. 『栗谷全書卷十 雜著』

(4) 陰陽의 現代的 概念.

東洋에서는 自然現象을 唯物論의 觀點에서 觀察하지 않고 에너지學(energetics)의 觀點에서 觀察하였다. 現代的 用語로 말하면 potential energy 와 kinetic energy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합하여 氣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氣의 性質을 두 가지로 分類하여 陰陽이라 하고, 定量的인 問題를 二進法으로 풀어갔다. 兩儀는 2¹이고 四象은 2²이고 八卦는 2³이고 64卦는 2⁶이다. 이 氣의 性質인 陰陽의 概念은 古代부터 東洋에서는 있었지만 西歐에서는 1787年 電氣의 coulomb 法則이 확정될 때부터 陰陽의 概

論을 주창한 張橫渠, 理氣一元論을 주창한 程氏兄弟 그리고 주자같은 사람들이 中國의 傳統文化에서 새로운 儒學을 구성한 것을 新儒學派라 한다.

이 思想은 고려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李氏朝鮮의 抑佛崇儒 정책에 따라 번성하게 되었다. 이때 우리나라에는 徐花潭 退溪 栗谷등을 배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뒤이어서 宣祖大王 光海君의 어명을 받아 許浚은 東醫寶鑑을 편찬하기에 이르른다. 李朝末 李濟馬는 四象醫學의 原典인 東醫壽世保元을 著術하였다.

(2) 東洋思想과 西洋思想의 比較

우리나라에는 儒佛仙 三教가 土俗 信仰과 함께 融和된 後에 기독교 思想이 들어와서 共存하고 있다. 이것은 印度文化·中國文化·西歐文化가 들어와서 우리의 固有한 傳統文化와 共存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와 함께 醫學도 東西洋의 醫學이 共存하고 있다. 이것은 葛藤과 混亂을 준다는 點에서 短點이기도 하지만 發展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點에서 長點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하느님이란 用語와 그 概念이 自然發生的으로 생겨난 것은 우연이 아니며 어느 學者의 學說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이는 古代에 地理的으로 隔離되어 있고 서로 交流가 없으면서도 時代的 背景이 비슷했던 東西洋에서 發生된 두 文明이 數千年이 지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融和되면서 自然發生的으로 생겨난 것이다.

歷史的인 觀點에서 보면 時代的 背景이 비슷한 古代에 東西洋에서 각각 만들어진 周易과 구약성경은 著述過程이 비슷하고 經典이란 점에서는 같은 것이다. 그 內容面에서 보면 言語나 表現은 전혀 다른 것이지만 宇宙의 창조를 論하고 있다는 點에서 周易과 구약의 창세기는 비슷하다. 周易에서 「乾爲天」으로부터 시작되고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된다.

여기서 東洋의 하늘(天)과 西歐의 God(神)과의 두 概念이 합쳐지면서 「하느님」이라는 순수한 우리 말의 用語가 만들어지고 그 用語속에 概念은 東西洋의 思想을 融和시킨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두 經典의 用語를 비교해 보면 하늘(天)과 God(神), 太極과 혼돈, 陽과 빛, 陰과 어둠, 陰陽이 합하여 生한다는 것과 하나님은 땅이 生物을 만들도록 하였다는 表現이 전혀 다르지만 똑 같은 自然現象을 說明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現代 科學的인 觀點에서 宇宙爆發說과 比較하면, 똑

괄직전에 상태를 太極과 혼돈으로 表現하고 폭발후에 陰陽 혹은 밝음과 어두움으로 되고, 太陽과 地球가 생겨서 여기에서 太陽의 energy와 地球의 energy가 합쳐서 生物이 생긴다는 것들은 類似性이 있어 보인다.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똑 같은 하나의 自然現象을 認識하는 觀點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 중에서도 形而上學的인 宗教觀은 東西洋 사이에 큰 差異點이 있음을 알 수 있다. 西洋에서는 大地를 創造한 絕對能力者인 神을 認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天地를 創造한 神의 存在내지는 創造한 事實을 믿고 있는데, 東洋에서는 사람의 能力으로는 그와 같은 것을 論할 수 없는 것으로 認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不可知論이라 하고 儒教의 格物致知思想, 即「事物의 理致를 연구하여 알아서 깨닫는 경지에 이르도록하는 思想」에 의하여 神을 究明해 보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即 神이란 표현은 人間이 알 수 없는 것이라는 意味를 갖는다. 그래서 東洋에서는 學問이 아무리 發展해도 神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 反面에 西洋에서는 科學者가 神에 도전하고 神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볼 수 있는데, 科學者가 침범한 神의 영역은 東洋의 神의 概念으로 解釋하면 神의 영역밖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科學이 많이 發展했다해도 사람이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 「精神」이란 表現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人格神이 들어 있다기 보다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能力으로 究明될 수 없는 部分이란 意味로 풀이해야 될 것이다. 그런 觀點에서 心理現象과 精神現象이 區別되고 精神現象을 究明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일 것이다. 오늘날 어느 누구도 그 限界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이상과 같은 東西洋의 思想을 融和시키는 것은 現代物質文明의 危機를 克服하는 前提條件이 될 것이다. 이 危機가 가장 심각한 나라도 우리 나라이고 東西洋의 思想을 融和시킬 수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3) 理氣論

구약의 창세기는 神의 能力에 의해서 創造된 天地를 描寫한 것이기 때문에 靜的인 宇宙觀이 되었다. 周易은 動的인 宇宙觀을 描寫하였다. 易의 뜻은 세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고 쉬운 것 [簡易], 변하는 것 [變易], 변하지 않는 것 [不易], 을 말한다. 여기서 변화를 이끄는 힘을 陰陽의 二氣로 說明하

念이 생겼다. 이 coulomb의 法則은 같은 種類의 電荷는 서로 빼 밀고 다른 種類의 電荷는 서로 끌어 당긴다는 것이다. 運動論에서는 空間幾何學의 으로 表示하여 plus와 minus로 標記한 것은 方向을 意味하고 있어서 실제로 陰陽의 概念과는 다르다.

東洋에서는 魅力이란 表現에서 보는 바와 같이 힘의 觀点에서 보고 있고 이는 陰氣에 해당되는데 끄는 힘을 말한다. 女子가 外面을 하면서 부끄러워하는데 魅力을 느낄 수 있는 것은 女性이 陰氣를 갖고 있음을 말한다. 英語의 attraction은 힘보다 끌어 잡아 당기는 動作을 더 強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意味에서는 陽氣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끈을 묶어서 잡아 당기는 힘은 陽氣에 해당된다. 女性의 魅力은 男子가 움직이는 方向과 反對方向으로 作用하고, 그 사이에 遠隔 作用을 하는데, 끈과 같은 어떤 媒體가 存在하는 것도 아니다. Newton의 萬有引力(universal gravity)의 法則은 陰陽으로 區分되어 있지 않다. 陰陽說에서는 地(地球)는 陰이고 太陽, 即天은 陽이다. 이는 아마도 物體가 움직이는 方向으로만 힘이 作用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인데 地球의 重力은 地球로 부터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自由落下는 物體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힘이 아래로 作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地球의 重力, 即 陰氣는 땅으로 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당기는 힘이 作用한다. 自由落下時에는 加速度가 붙는 것으로 봐서 서로 당기는 힘이 作用한 것이고, 결국 두 物體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빛은 寺速度이기 때문에 性質이 다르니까라서 빛은 밀고 地球는 당겨서 빛이 移動한다. 이를 陰陽으로 說明하면 陽과 陽은 서로 밀고 [反作用], 陰과 陰은 서로 잡아 당기고 [加速度], 陽과 陰은 陽이 밀고 陰은 잡아 당겨서 결합된다 [男女關係]. 이것은 電氣의 公理法則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

物理學의 場(field)의 概念은 空間幾何學의 意味가 있는데 陰陽說은 빈 空間속에 힘(氣)이 存在한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地球의 引力圈이란 表現은 힘이 미치는 범위라는 뜻인데 地球의 gravitational field(重力場)란 表現은 空間이란 意味가 있다. 과연 빈 空間속에 힘이 存在하는가? 地球의 引力圈속에 陰의 힘이 存在하고, 太陽系속에 陽의 힘이 存在하는가? 陰陽說은 現代科學에서 證明되지 않았다. 東洋哲學에서 陰陽說을 假說로써 사용한 것과 같이 이 連載에서도 陰陽說을 假說로 삼았다. 만일 이 假說이 부정된다면 이 連載內容도 否定될 것이고 이 假說이 證明된다면 이 連載 內容은 枝葉的인 것에 불과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1) 李承源譯：一周易 平凡社. 1976.
- 2) 金敬琢譯：一周易 明文堂. 1978.
- 3) 張基權外譯：一老子, 莊子. 三省出版社 1979.
- 4) 鄭在赫：一醫學과 哲學의 對話. 電波科學社. 1979.
- 5) 李侯浩譯：一票谷의 思想. 玄岩社 1975.
- 6) 金容雲：一文化속의 數學. 玄岩社 1976.

서울시 인정 제39호

조양치과기공소

代表 金 幸 一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 1동 483

전화 (966) 6 8 3 4